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Weekly Strategy & Economy

유로 경기회복에 주목

2013. 8. 19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마주욱**
 02) 3787-5025
 majuck@kiwoom.com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키움증권

CREDIT

Contents



1. 주간 증시: 유로 경기회복에 주목	3
2. 국내외 주요 이슈: 아베노믹스의 한계	4
3. 주간 경제 전망: '양적완화 축소' 우려 지속	5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소폭 반등	7
5. 수급동향: 외국인 매수세 재개될 전망	9
6. Earnings & Valuation: Valuation 상승	10
7. 해외 증시 동향	11
Chart & Table	13

유로 경기회복에 주목

>>> 국내증시, 반등 시도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 (1,900~1,960pt). 물론 미국의 주식시장이 9월 중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음. 이런 흐름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 다만,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단기적으로나마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타날 시점으로 판단. 지난 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4.5bp 급등. 한때 2.864%까지 상승해 2011년 7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 반면, 지난 6월과 달리 국채 및 주식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에 비해 외환 및 원자재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었음. 올해 중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판단.

>>> 유로 경기회복에 주목해야 할 시점

'양적완화 축소 이슈' 보다는 유로 경기회복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 물론, 재정통합과정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국가의 부채증가 및 실업률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유로가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아님. 유로의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증가했고,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로 2/4분기 GDP는 전분기비 0.3% 증가해,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음. 또한 경기선행지수 및 제조업 PMI지수 등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가 하반기 유로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자동차, 반도체, 소재, 산업재 업종 비중 확대 권고

지난 주에 이어 글로벌 경기개선은 자동차, 반도체, 소재, 산업재 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업종별 전망을 유지.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

1. 주간 증시: 유로 경기회복에 주목

>>> 국내증시, 반등 시도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1,900~1,960pt). 물론 미국의 주식시장이 9월 중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이다. 다만,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나마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타날 시점으로 판단된다.

지난 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4.5bp 급등했다. 한때 2.864%까지 상승해 2011년 7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금리상승 영향으로 주택시장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8월 소비자신뢰지수 및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등이 급락했다. 이는 여전히 연준의 양적완화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편으로는, 국채 및 주식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에 비해 외환 및 원자재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 6월과 달리 급격한 달러화 강세, 그리고 위험자산에서의 자금유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올해 중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보다 유로 경기회복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물론, 재정통합과정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국가의 부채증가 및 실업률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유로가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에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다. 유로의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증가했고,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로 2/4분기 GDP는 전분기비 0.3% 증가해,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또한 경기선행지수 및 제조업 PMI지수 등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가 하반기 유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자동차, 반도체, 소재, 산업재 업종 비중 확대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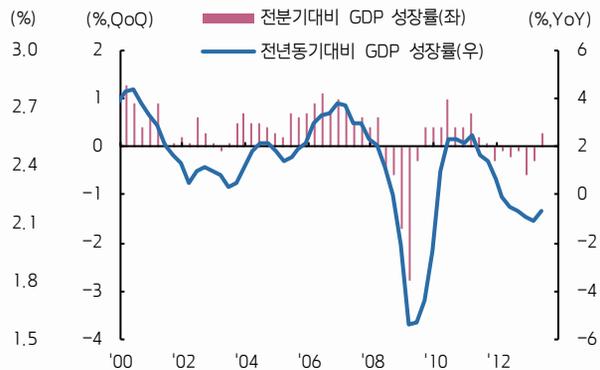
지난 주에 이어 글로벌 경기개선은 자동차, 반도체, 소재, 산업재 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업종별 전망을 유지한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달러화 및 미국 국채수익률 추이



자료: Datastream

유로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Datastream

2. 국내외 주요 이슈: 아베노믹스의 한계

>>> 소비세 인상 결정과 일본 정부의 딜레마

일본 2/4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분기 0.9% 성장률 및 시장 기대치였던 0.9%를 하회하는 결과였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예상을 밑도는 이유는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4분기 기업 설비투자는 예상외로 0.1% 감소해 6분기 연속 마이너스 권을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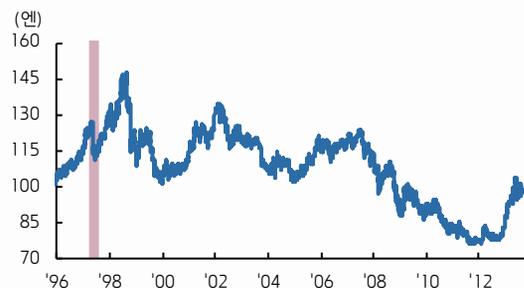
일본 정부는 2/4분기 GDP 결과를 토대로 10월에 기존 5%의 소비세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8%와 10%로 인상할지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상황은 일본 정부에게 엔화 약세를 통한 경기 부양화 혹은 재정건전화 측면 모두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우선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이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려면, 설비투자 및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이 나타나야 한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악몽을 가지고 있다. 1997년 4월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가, 1/4분기 0.7% 성장했던 GDP가 2/4분기에 -0.9%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화의 추세적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소비세 인상이 지연된다면, 일본 정부부채가 1,000조 엔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본 국제 신용등급 하향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국제 금리 상승 위험에 따라 엔화 약세유도를 위한 BOJ의 유동성 공급 모멘텀은 이전보다 완화될 것이다. 만약 설비투자 회복에 따른 임금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위축이 발생한다면, 일본 내 디레버리징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세 인상여파로 일본 경기침체가 나타난 1997년 2/4분기 중 엔/달러 환율은 4월 30일 127.14엔을 고점으로 6월 11일 111.06엔으로 급격히 절상되었다.

따라서 엔/달러 환율은 향후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보다는 이전 저점수준인 95엔과 저항선인 105엔 선에서의 박스권 흐름에서 당분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물론 설비투자가 빠르게 재개된다면, 일본 정부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의 부진추세 지속은 이러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또한 2/4분기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냈지만, 판매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공격적인 설비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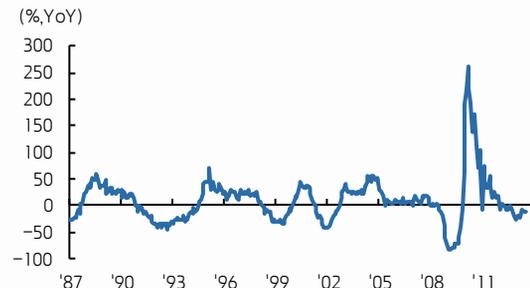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유럽 경기회복 시그널과 더불어 엔/달러 환율이 하락전환하기 시작한 7월 초 이후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Datastream

일본 공작기계수주 증가율 추이



자료: 일본 공작기계공업회

3. 주간 경제 전망: ‘양적완화 축소’ 우려 지속

>>> 국내 경제

7월 유통업체 매출, 회복되고 있지만 폭은 크지 않아

7월 할인점 및 백화점 매출이 전월보다 증가 폭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지출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백화점의 경우 여름세일 기간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매출이 부진했음을 감안할 때 기대보다는 다소 미진한 실적이다. 7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결국, 국내 경기회복이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그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추정된다.

>>> 미국 경제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듯

주택경기의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는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모기지 시장의 위축이 향후 주택시장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7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에 비해 0.5%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시장이 다소나마 개선됐고, 고용과 제조업의 선행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회복됨에 따라 당분간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 경제

경제지표 반등 가능성 높아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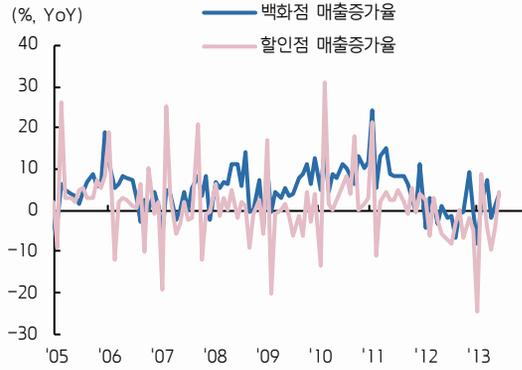
8월 HSBC 제조업 PMI는 전월의 47.7에서 48.2로 상승할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시중에 다소나마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는 중소형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당국은 경기 경착륙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몇몇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추가적인 경기둔화를 정부가 외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8. 19 ~ 8. 23)

날짜	국가	경제지표	대상	중요도	전망치	이전치
8월 19일	한국	할인점 매출(YoY): 19~21일 중	7월	C	NA	4.2%
		백화점 매출(YoY): 19~21일 중	7월	C	NA	4.1%
8월 21일	미국	기존주택매매(SAAR)	7월	A	5.13M	5.08M
		MBA 모기지 신청지수(WoW,SA)	8월 3주	B	NA	-4.7%
		FOMC 의사록 공개	7월			
8월 22일	미국	경기선행지수(MoM)	7월	B	0.5%	0.0%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SA)	8월 3주	B	330K	320K
		피셔 연은총재 연설				
		잭슨홀 회의(8/22~24)				
		중국	HSBC 제조업 PMI(예비치)	8월	B	48.2
8월 23일	미국	유럽	8월 A	B	50.6	50.3
		신규주택판매(SAAR)	7월	A	490K	497K

주: '중요도'는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표시한 것으로, A는 경제전망에 큰 도움이 되는 핵심 변수를 지칭.

국내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Conference Board

미국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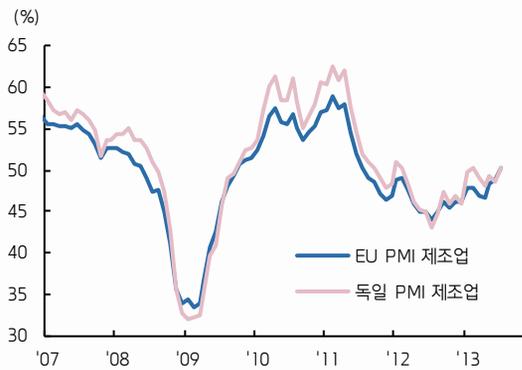
자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U.S. Census Bureau

미국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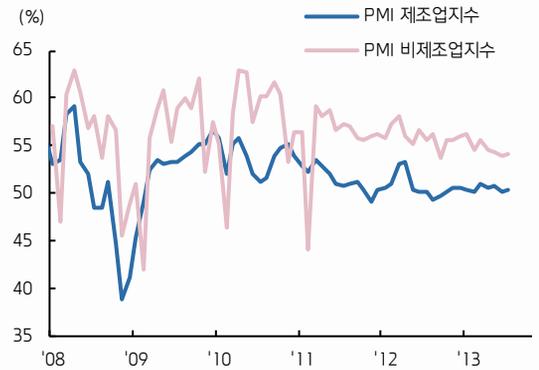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Labor

유로 및 독일 PMI 추이



자료: Markit

중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추이



자료: 중국 통계청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소폭 반등

>>> 지난주 동향

달러화,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에 반등

지난주 달러지수는 전주대비 0.16% 상승 마감했다. 연준이 자산매입 축소를 9월에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경제지표는 일부 부진했지만, 그 수준이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를 지연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택지표는 금리상승 영향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의 85.1에서 80.0으로 하락했다. 주중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과 달러화 롱 포지션 청산 등은 달러화 강세 폭을 제한했다. 특히 8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의 하락(19.8에서 9.3으로 급락)은 Fed의 9월 양적완화 축소를 확신하기 어렵게 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0.12% 상승한 1,113.59원에 마감됐다. 주중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네고 물량 유입과 역외 달러화 매도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미미했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및 수입업체의 결제수요 등은 원/달러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켰다.

아시아 통화지수 및 달러지수



자료: Datastream

유로화 및 위안화



자료: Datastream

>>> 이번 주 전망

원/달러 환율, 1,100~1,130원 중심 등락 예상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100~1,130원 중심의 등락이 예상된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겠지만, 원/달러 환율의 약세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달러화의 급격한 강세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를 꾸준히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월말로 갈수록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이 유입될 것이고, 달러화 수급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이 1,110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적은 거래량과 결제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도 좁은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와 같은 1,100~1,130원 수준에서의 등락이 예상된다.

최근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환율 변동률

	전주 말 8월 16일	1주 전 대비(%)	7월 말 대비(%)	2012년 말 대비(%)	8월 9일	7월 말	6개월 전	2012년 말
달러/유로	1.3329	-0.10	0.40	1.00	1.3342	1.3276	1.3360	1.3197
엔/유로	130.00	1.25	-0.41	13.72	128.39	130.53	124.96	114.32
엔/달러	97.53	1.37	-0.80	12.60	96.21	98.32	93.50	86.62
위안/달러	6.1143	-0.13	-0.24	-1.87	6.1220	6.1289	6.2372	6.2306
원/달러	1,113.59	0.12	-0.86	4.62	1,112.30	1,123.28	1,078.20	1,064.40
원/100엔	1,141.84	-1.23	-0.06	-7.08	1,156.11	1,142.47	1,153.15	1,228.82
대만 달러/달러	29.92	-0.06	-0.22	3.06	29.94	29.99	29.56	29.03
스위스 프랑/달러	0.9265	0.44	-0.20	1.29	0.9224	0.9284	0.9218	0.9147
달러/호주 달러	0.9185	-0.23	2.48	-11.54	0.9206	0.8963	1.0305	1.0383
달러지수	81.26	0.16	-0.24	1.87	81.13	81.45	80.58	79.77

자료: Datastream

원/달러 환율 vs 엔/달러 환율



자료: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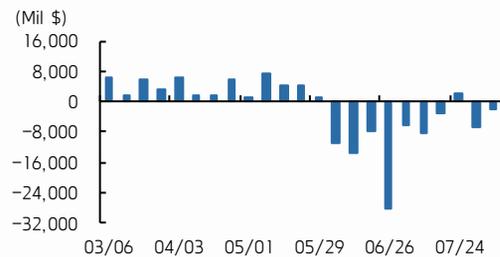
5. 수급동향: 외국인 매수세 재개될 전망

>>>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 완화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강화

지난주 발표된 7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0%를 기록했다. 2.0%는 Fed의 물가 관리 기준의 하한선이다. 다만, 이를 기점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지난 주부터 미국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유출 현상은 진정되는 모습이다. 다음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과거와 달리 버냉키 의장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옐런 부의장이 패널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추가적인 지표 확인의 필요성과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낮은 인플레이에 대한 경계 등에 대한 발언을 감안할 때,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출구전략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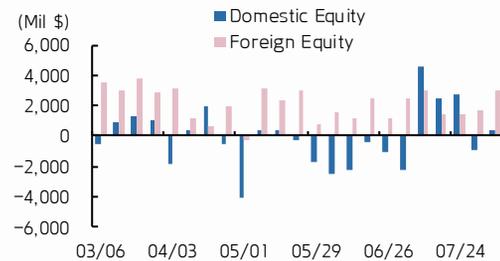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한 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는 구간에서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목할 현상은 미국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의 중심이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닌 해외 펀드라는 점이다. 또한 중국 경기에 연동된 구리가격이 장기 저항선을 돌파한 상황이다. 구리가격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매 방향성에 선행하고 있다. 이는 구리와 국내 경기 및 주식시장이 중국 경기라는 큰 공통분모를 갖기 때문이다. 구리에 대한 투기적 숏 포지션은 역사적 최고 수준에서 중국 7월 수출입 및 산업생산 호조와 이에 따른 향후 재고재구축 전망 그리고 10월 3중 전회를 앞두고 경기부양책 기대로 청산되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의 본거지이자 투기적 성향이 가장 높은 지역인 윈조우시에서 부동산 구매제한이 완화되었고, 중국의 구리 프리미엄은 톤당 200 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와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에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채권형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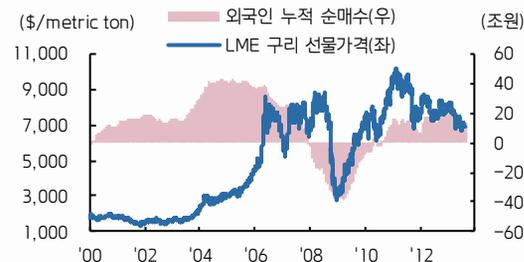
자료: ICI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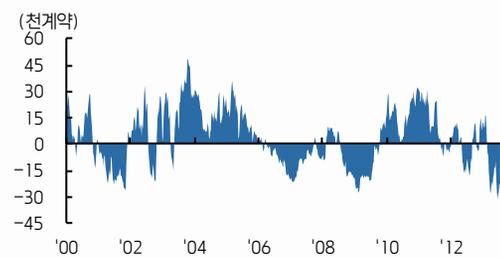
자료: ICI

구리가격 vs 국내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LME, KRX

구리에 대한 투기적 순포지션 추이



자료: CFTC

6. Earnings & Valuation: Valuation 상승

>>> 하반기와 2014년 실적을 반영해야 할 때

지난 한 주간 2013년 영업이익 및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0.4%, 0.5% 하락하였다. 7월 초의 하락 폭에 비하면 확실히 추정치의 하락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2/4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 단계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의 적극적인 조정이 없는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반기 글로벌 및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의 시장 상승으로 대형주 기준 2013년 PER은 9.9배까지 상승했다. 2013년 밴드 상단을 뚫은 것으로 단기적으로 Valuation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을 감안하면 향후 PER Band는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4분기 실적 발표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2014년 실적 추정치를 반영한 12개월 Forward 기준으로 Valuation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12개월 Forward 기준으로 산정한 대형주의 PER은 8.8배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업종별 기업이익 추정치 변화율

구분	3/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2013년 영업이익 추정치			PER 2013년
	1W	1M	3M	1W	1M	3M	
에너지	-0.4	6.9	-0.9	-1.5	2.9	-4.5	10.7
소재	-0.3	-2.7	-10.2	-0.2	-2.5	-7.7	12.2
금속 및 광물	-0.4	-2.7	-11.2	-0.4	-2.7	-7.7	12.1
화학	-0.2	-2.8	-9.1	0.0	-2.3	-7.9	12.3
산업재	2.2	3.1	0.5	-0.2	-1.2	-7.6	13.3
건설	0.0	-5.7	-14.4	-1.8	-18.0	-32.6	18.3
기계	0.0	5.6	0.9	0.0	5.4	0.4	
조선	0.0	-3.4	-6.5	0.0	-1.7	-9.3	14.6
경기소비재	-0.2	-0.1	1.2	-0.1	1.3	1.8	6.6
자동차	0.0	0.8	2.4	0.0	2.6	4.1	5.7
백화점	0.0	-2.6	-4.2	0.0	-1.4	-3.8	11.0
호텔 및 레저	-5.2	-5.7	-7.7	-5.6	-6.6	-8.6	14.4
필수소비재	-0.4	-4.7	-6.8	-0.4	-4.6	-8.3	16.2
금융	0.5	-1.9	-9.1	-0.2	-3.8	-17.8	11.3
은행	0.0	-2.2	-9.0	0.0	-3.5	-11.4	
보험	6.5	1.2	-1.5	0.4	-0.9	-33.6	19.4
증권	-1.3	-2.5	-19.3	-3.2	-12.7	-51.9	19.2
의료	0.0	-1.3	-1.7	0.0	0.7	-2.6	26.9
IT	0.3	-1.3	-6.6	0.0	-0.5	-4.6	6.7
반도체 및 관련장비	0.4	0.1	-5.3	0.0	-0.1	-4.3	5.9
디스플레이 및 관련부품	0.0	-3.9	-9.7	0.0	2.3	-1.1	12.6
인터넷 서비스	0.9	-8.2	-10.2	-0.2	-4.7	-6.5	19.9
통신서비스	-0.4	-1.4	-1.6	-0.2	-2.2	-3.6	9.2
유틸리티	-15.6	-20.3	-30.9	-6.7	-13.8	-24.5	17.6
전체	-0.7	-1.9	-6.7	-0.4	-1.4	-6.7	8.8

자료: FnGuide, 키움증권 KOSPI200 종목 중 지속적인 추정치가 존재하는 종목 대상

3/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자료: FnGuide,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대형주 기준

PER Band



자료: FnGuide, 키움증권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대형주 기준

7. 해외 증시 동향

>>> 지난 주 다우지수, 2.23% 하락

양적완화 축소 우려 재부각으로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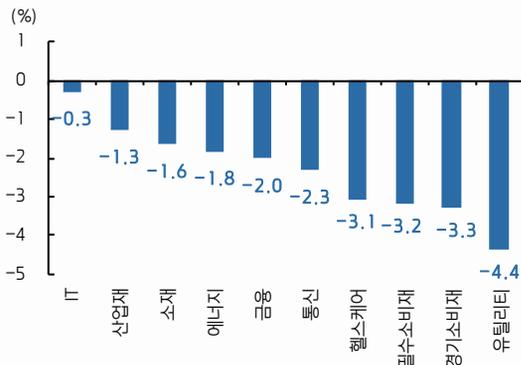
지난주 미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의 엇갈린 결과로 자산매입 축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어졌다.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년 1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해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우려를 높였다. 그러나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치인 85.2에 못 미치는 80.0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부진하여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편,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양적완화 축소를 위해서 추가적인 지표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낮은 인플레이에 대한 경계 등을 발언했다. 연내 QE 축소 실시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시행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Fed 입장이 재확인됐다.

>>> 지난주 상하이종합지수, 0.79% 상승

상하이종합지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정부의 산업 지지발언에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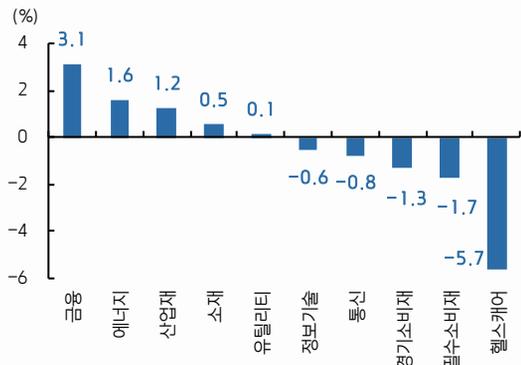
지난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상승 마감했다. 매크로 지표의 호조로 개선된 투자심리가 지속되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주 초반 석탄관련주의 급등 등 경기민감주의 강세가 증시 상승을 주도했으며, 주 중 계속된 정부당국의 개별 산업 지지발언 및 규제 완화, 부양책으로 관련 산업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에 주 후반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16일 장 중 거래량이 급증하여 상하이종합지수가 5%의 폭등을 하는 등 대형주위주의 71개 종목이 상한제한선까지 오르며 거래정지가 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광대은행은 매매거래의 오작동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증시거래시스템의 안정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13일 원조우시는 주택거래제한 규제를 완화하며 기존 주택구매자의 재구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원은 각 성, 시에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의 가속화 요구 및 도시 기초시설과 판차촌 개선의 투자 촉진을 강조하여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민생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각됐다. 또한 QFII와 RQFII 등의 꾸준한 증가세와 국무원의 중소기업 재 융자 방안 촉진이 자본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감이 확대됐다.

S&P 5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심호 3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ONLINE NO.1 KIWOOM SECURITIES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Chart & Table

>>> 증시 주요지표

거래소 시장

구분		8/9	8/12	8/13	8/14	8/16	
가격 지표	KOSPI	1,880.71	1,884.83	1,913.03	1,923.91	1,920.11	
	등락폭	-3.26	+4.12	+28.2	+10.88	-3.8	
	(시가)	1,884.57	1,878.50	1,893.42	1,912.59	1,903.72	
	(고가)	1,888.79	1,894.42	1,913.03	1,925.10	1,927.59	
	(저가)	1,876.07	1,878.33	1,890.78	1,908.92	1,901.70	
	대형주 지수	1,833.50	1,839.27	1,871.79	1,883.52	1,879.68	
	중형주 지수	2,170.93	2,166.31	2,170.36	2,174.80	2,171.72	
	소형주 지수	1,498.12	1,493.13	1,494.66	1,501.88	1,499.40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318 (2)	313 (6)	409 (7)	449 (5)	354 (10)
		하락 (하한가)	455 (0)	470 (0)	378 (9)	339 (8)	439 (2)
	이동평균	(5일)	1,893.17	1,886.89	1,888.17	1,897.29	1,904.52
		(20일)	1,896.69	1,897.18	1,899.51	1,901.33	1,903.56
		(60일)	1,900.33	1,898.63	1,897.47	1,896.52	1,895.29
		(120일)	1,934.77	1,933.93	1,933.00	1,932.24	1,931.42
이격도	(5일)	99.34	99.89	101.32	101.40	100.82	
	(20일)	99.16	99.35	100.71	101.19	100.87	
투자심리	(%)	40	50	50	60	5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095,958	1,098,124	1,115,161	1,122,009	1,120,558
	거래량	(천주)	283,474	297,512	362,604	363,325	348,501
	이동평균 (5일)		292,541	305,246	318,838	329,016	331,083
	이동평균 (20일)		328,268	326,642	329,606	328,626	327,037
	거래대금	(십억원)	3,541	3,101	4,108	4,113	3,773
		이동평균 (5일)	3,410	3,477	3,600	3,710	3,727
	이동평균 (20일)	3,667	3,662	3,718	3,722	3,735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462	-407	-3,110	-3,234	-1,945
	외국인	(억원)	-446	-586	1,738	3,581	2,200
	기관	(억원)	-42	961	1,416	-308	-95
	일반법인	(억원)	88	47	41	15	-140
	프로그램매매	(억원)	-2,442	-828	1,180	246	-998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코스닥 시장

구분		8/9	8/12	8/13	8/14	8/16	
가격 지표	KOSDAQ	554.93	550.25	550.85	550.87	548.79	
	등락폭	-0.37	-4.68	+0.60	+0.02	-2.08	
	(시가)	556.79	555.15	552.06	553.60	544.77	
	(고가)	557.10	555.46	552.52	554.38	549.79	
	(저가)	553.65	549.13	548.51	550.87	544.60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460 (5)	301 (4)	430 (5)	499 (8)	357 (12)
		하락 (하한가)	454 (0)	602 (1)	496 (4)	399 (3)	565 (3)
	이동평균	(5일)	555.78	554.51	553.21	552.44	551.14
		(20일)	546.51	547.44	548.10	548.55	548.91
		(60일)	543.06	542.79	542.52	542.16	541.73
		(120일)	546.39	546.62	546.83	547.05	547.22
	이격도	(5일)	99.85	99.23	99.57	99.72	99.57
		(20일)	101.54	100.51	100.50	100.42	99.98
	투자심리	(%)	60	60	60	60	6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28,138	127,637	127,783	127,806	127,341
	거래량	(천주)	349,814	376,523	459,778	419,740	397,044
	이동평균 (5일)		346,709	353,508	376,038	389,407	400,580
	이동평균 (20일)		341,590	342,064	348,061	352,735	356,196
	거래대금	(십억원)	1,750	1,873	1,964	1,882	1,634
		이동평균 (5일)	1,986	1,968	1,906	1,875	1,820
	이동평균 (20일)	1,829	1,840	1,847	1,846	1,844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87	481	180	-30	-398
	외국인	(억원)	-73	-135	111	143	389
	기관	(억원)	191	-358	-221	-121	44
	일반법인	(억원)	-30	1	-76	5	-38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증시 자금동향

역내 펀드 자금유출입

	12년 말	주간증감	8/9	8/12	8/13	8/14
고객예탁금	180,143		176,164	178,058	177,757	177,165
(증감)		-4,323	-5,323	+1,894	-301	-592
신용융자 (거래소)	22,029		24,386	24,535	24,504	24,407
(증감)		+198	+176	+149	-31	-97
신용융자 (코스닥)	17,095		21,902	21,934	22,046	22,093
(증감)		+271	+79	+32	+112	+47
미수금	1,241		1,782	1,789	1,575	1,175
(증감)		-375	+232	+7	-214	-400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737,330		775,268	775,287	775,222	774,834
(증감)		+28	+462	+19	-65	-388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Index펀드 포함)	654,863		680,807	680,868	681,013	680,627
(증감)		+287	+467	+61	+144	-385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Active)	496,600		481,178	481,276	481,645	481,428
(증감)		+381	+131	+98	+369	-218
국내 사모 주식형 수익증권	82,467		94,460	94,418	94,209	94,207
(증감)		-259	-5	-42	-209	-3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83,050		258,157	257,844	257,683	257,462
(증감)		-1,123	-428	-313	-161	-221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100,435		96,189	96,161	96,644	96,733
(증감)		+509	-35	-28	+483	+89
해외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26,233		31,174	31,147	31,111	31,081
(증감)		-124	-31	-27	-36	-30
채권혼합형 수익증권	192,042		236,974	235,376	235,412	235,510
(증감)		-1,877	-413	-1,598	+36	+98
채권형 수익증권	468,680		540,003	538,704	539,371	536,866
(증감)		-258	+2,879	-1,299	+667	-2,505
MMF	636,706		695,950	696,440	703,852	706,340
(증감)		+9,819	-571	+490	+7,412	+2,488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키움증권

>>> 외국인/기관 주간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삼성전자	1,832	KT	344
2	SK하이닉스	1,128	대우조선해양	252
3	현대차	931	KB금융	208
4	기아차	884	삼성물산	204
5	신한지주	682	넥센타이어	142
6	KODEX 200	457	LG전자	128
7	효성	455	CJ제일제당	113
8	롯데케미칼	452	만도	113
9	고려야연	450	우리금융	112
10	두산인프라코어	235	강원랜드	100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KODEX 레버리지	2,004	KODEX 인버스	857
2	삼성전자	770	효성	340
3	SK하이닉스	756	KODEX 200	332
4	LG전자	213	신한지주	318
5	GS	178	SK텔레콤	213
6	엔씨소프트	177	현대건설	182
7	한국전력	175	LG유플러스	165
8	KT	174	신세계	145
9	SK이노베이션	156	현대모비스	128
10	제일모직	152	삼성중공업	119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외국인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서울반도체	336	GS홀쇼핑	65
2	골프존	103	루멘스	46
3	성광벤드	87	차바이오텐	43
4	덕산하이메탈	49	매일유업	34
5	CJ홀쇼핑	46	씨티씨바이오	27
6	CJ E&M	42	씨젠	23
7	셀트리온	34	이지바이오	21
8	포스코 ICT	28	유진테크	19
9	삼천리전자	23	씨유메디칼	19
10	사파이어테크놀로지	20	유아이엘	17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골프존	239	에스엠	231
2	루멘스	50	게임빌	121
3	서울반도체	35	CJ홀쇼핑	93
4	덕산하이메탈	32	씨티씨바이오	78
5	솔브레인	32	SK브로드밴드	52
6	이오테크닉스	31	서원인텍	47
7	KH바텍	28	화일약품	47
8	씨젠	27	컴투스	43
9	동아화성	26	유진테크	38
10	하이비전시스템	25	파라다이스	38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Technical Approach

전고점 돌파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증가	KOSDAQ	전일 증가
현대상선	24,650	소리바다	4,130
현대하이스코	40,100	휴맥스홀딩스	12,350
두산인프라코어	14,350	동양시멘트	3,475
태광산업	1,202,000	크레듀	48,600
동국제강	13,600	와이지-원	13,850
아이에스동서	15,500	유비쿼스	9,050
만도	123,000	오상자이엘	12,800
롯데케미칼	191,500	인성정보	5,960

주: 전일 증가가 3개월 이내 최고종가인 종목 중 주가등락을 상위 종목

이격 확대종목 (단위: %)

KOSPI	이격도	KOSDAQ	이격도
KPX케미칼	88	KT유지	80
넥센타이어	90	MPK	82
한세실업	90	화일약품	83
쌍용양회	93	아미노로직스	85
세방전지	94	바텍	86
삼광글라스	94	소프트맥스	87
유한양행	94	게임빌	89
GS리테일	95	에스엠	90
화신	95	씨티씨바이오	90
파미셀	95	KTH	90

주: 20일 이격도 기준 이격확대(이격도 98% 이하) 상위 종목

Stochastic Slow 신호 발생종목 (단위: %)

KOSPI	Slow %K	KOSDAQ	Slow %K
SBS	25	액토즈소프트	26
현대위아	23	큐렉소	25
한성	23	유비벨록스	24
하이트진로	22	아프리카TV	23
동양	22	인터플렉스	22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21	에스24	21
금호타이어	21		
한진해운홀딩스	20		
삼성테크윈	20		

주: Slow %K가 20% 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외국인 지분을 확대종목 (단위: %)

KOSPI	외국인 지분율	KOSDAQ	외국인 지분율
없음		삼천리자전거	17.76
		인성정보	4.49

주: 20 거래일 대비 외국인 지분율 3% 이상 확대 종목

상한가 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증가	KOSDAQ	전일 증가
없음		없음	

주: 최근 10일 중 첫 상한가 기록 종목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증가	KOSDAQ	전일 증가
영진약품	2,085	게임하이	7,980
이월드	775	휴맥스홀딩스	12,350
태원물산	2,490	오리엔탈정공	1,555
현대하이스코	40,100	에이스침대	90,700
영보화학	3,400	시그네틱스	2,995
대호에이엘	2,105	하림	3,445
만도	123,000	위닉스	8,360
한솔아트원제지	2,235	서울반도체	38,900
현대차	236,500		
이필름	2,215		

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중 주가등락을 상위 종목

거래 급증종목 (단위: %)

KOSPI	거래증가률	KOSDAQ	거래증가률
현대하이스코	469.53	유진기업	1007.73
동아쏘시오홀딩스	265.61	스틸플라워	960.63
LG상사	254.01	게임하이	802.05
동양	206.11	대아티아이	572.25
고려아연	171.36	소리바다	497.62
동국제강	164.13	에스24	459.96
태광산업	162.34	휴맥스홀딩스	399.89
웅진에너지	135.70	나노신소재	258.36
카프로	110.50	동양시멘트	249.29
두산인프라코어	103.37	우전앤한단	226.85

주: 전일 3% 이상 주가 상승 종목 중 20일 평균대비 50% 이상 거래증가 종목

기관 매수세 유입 종목 (단위: %)

KOSPI	주가 등락율	KOSDAQ	주가 등락율
두산인프라코어	3.99	이노칩	3.11
LG상사	3.92	태양기전	2.56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3.32	제닉	1.86
풍산	2.09	아이디스홀딩스	1.63
현대제철	1.77	유아이엘	1.47
롯데푸드	1.62	SBS콘텐츠허브	1.45
코웨이	1.58	위메이드	0.91
삼성엔지니어링	1.52	경창산업	0.81
일진디스플레이	1.49	SG&G	0.47
한국전력	1.19	리노공업	0.46

주: 최근 10일 중 7일 이상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 중 등락을 상위 종목

>>> 아시아 증시 외국인 및 Global Fund Flow 동향

외국인 지난 주 전반적 매도 우위 (단위 Mil \$, %, pt)

	대표지수 동향		외국인 순매수 금액				
	8월 16일	동락률	8월 9일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누적
한국	1,920.11	-0.2	-52.3	600.0	1,462.4	-1,752.4	-5,264.9
대만	7,925.00	0.0	-273.9	-466.3	374.0	-2,905.7	383.6
인도	18,598.18	0.7	0.0	128.7	176.3	-543.9	5,169.0
태국	1,445.76	-0.5	-43.3	-29.0	-310.2	-2,327.0	-2,988.4
필리핀	6,525.95	-0.8	0.0	-45.8	108.0	30.2	784.8
인도네시아	4,568.65	-2.5		-131.9	235.6	-2,745.3	-1,168.5
일본	13,650.11	-0.7	-	-1,544.5	876.1	31,366.5	85,756.4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일본 1주 지연 데이터

한국 증시(KOSPI)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대만 증시(TWSE)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 증시(SENSEX)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태국 증시(SET)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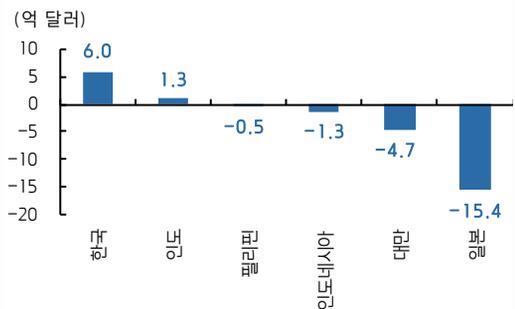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네시아(JCI)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지난주 아시아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MSCI 주요 지역별 실적전망 변화

세계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 배)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필수소비재, 산업재,소재 업종 하향조정	-0.9	0.6	-0.1	0.2	0.0	-2.3	-4.8	-15.4	-21.1	-10.6	-9.0	13.3
에너지	-0.2	-0.4	-2.1	-2.6	-1.7	-4.7	-7.1	-17.3	-43.4	-27.6	-39.5	10.6
소재	-1.3	-3.0	-7.5	-14.3	-3.4	-9.9	-20.7	-46.1	-48.9	-50.8	-31.2	12.8
산업재	-1.3	0.7	1.0	1.0	-0.3	-2.5	-5.9	-21.5	-21.3	-19.0	-3.4	14.2
경기소비재	-0.9	1.5	3.6	6.4	0.6	2.0	0.3	-1.9	-10.5	-4.6	2.9	14.9
필수소비재	-1.4	0.2	-1.1	-0.4	-0.7	-3.6	-5.2	-34.3	-38.8	-0.5	-9.3	17.1
의료	-0.8	1.2	0.2	0.1	0.8	-1.9	-4.2	-22.4	-2.8	-6.7	8.0	15.8
금융	-0.5	1.7	0.5	2.7	1.2	-1.6	-1.8	-1.9	-17.6	14.3	2.8	11.5
IT	-0.8	-0.1	0.1	1.1	-0.6	-2.2	-4.1	2.4	0.5	-3.4	-7.2	13.2
통신서비스	1.0	4.2	15.1	35.6	3.2	11.2	25.2	-20.2	-16.9	-40.2	-31.0	13.2
유틸리티	0.0	2.0	3.6	4.8	1.8	2.9	0.0	-16.5	-12.0	-9.7	-20.9	14.0

한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 배)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에너지, IT, 경기소비재,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업종 상향조정	0.7	-0.3	-4.3	0.2	-2.0	-8.8	-7.7	-50.5	-44.9	-35.4	-57.8	8.2
에너지	3.3	3.4	-2.9	-8.5	1.0	-11.1	-19.3	-33.3	-100.0	-100.0	-100.0	8.3
소재	-0.6	-1.6	0.9	-14.1	-6.6	-9.9	-28.5	-75.0	-66.7	-66.7	-77.8	11.2
산업재	-1.8	-3.6	-6.6	-8.9	-10.6	-25.0	-31.7	-75.0	-42.9	-14.3	-72.2	12.0
경기소비재	1.7	2.7	-5.2	3.3	1.6	-7.1	-2.8	-23.1	-53.8	-41.7	-30.8	7.2
필수소비재	1.3	-0.6	-4.9	-14.5	-2.1	-9.4	-12.6	-55.6	-88.9	-16.7	-40.0	15.7
의료	-8.2	-7.2	-7.2	-4.0	-8.7	-7.5	-12.2	-50.0	50.0	0.0	-50.0	23.1
금융	-1.3	-4.7	-8.6	-13.1	-6.8	-16.0	-23.0	-33.3	-41.2	-55.6	-75.0	9.5
IT	1.9	0.6	-0.5	14.7	0.5	-1.5	10.3	-55.6	-11.1	14.3	-62.5	6.5
통신서비스	-4.2	-0.1	14.4	17.3	-3.0	5.9	3.2	33.3	33.3	-33.3	33.3	10.1
유틸리티	1.4	3.2	-3.5	29.6	-12.5	-34.8	-23.0	0.0	0.0	-100.0	50.0	9.3

미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 배)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통신서비스, 경기소비재, IT,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업종 하향조정	-0.4	0.4	2.2	3.8	0.0	0.3	-0.8	6.0	-18.4	-0.5	-6.2	14.5
에너지	-0.2	-1.4	-1.2	1.0	-2.8	-4.2	-3.8	-9.1	-63.6	1.8	-41.8	12.6
소재	-0.6	-3.1	-1.5	-3.8	-4.2	-5.5	-12.3	-34.4	-62.5	-17.6	-35.3	14.5
산업재	-0.6	-0.1	1.9	3.0	-0.8	-0.7	-2.5	0.0	-18.1	-16.4	2.7	14.9
경기소비재	-0.9	-0.3	4.1	7.2	-1.3	4.0	2.6	5.1	-1.0	17.2	-3.0	17.4
필수소비재	-0.5	-0.1	1.1	3.2	-1.0	-1.5	-1.8	-13.3	-28.9	34.8	19.6	16.7
의료	-0.1	1.4	0.8	1.8	1.2	-1.3	-2.6	0.0	-9.7	-27.1	10.0	15.9
금융	0.6	2.8	5.7	10.1	3.3	4.7	6.9	38.1	-22.6	18.3	2.9	12.8
IT	-0.8	-0.5	1.3	-0.3	-0.8	-0.7	-4.7	32.9	8.5	-23.8	-9.5	13.5
통신서비스	-1.6	7.1	12.3	14.4	9.5	10.8	7.3	-100.0	-20.0	-20.0	-60.0	16.4
유틸리티	0.1	1.4	0.5	2.9	1.1	-0.7	0.4	-11.8	-8.8	0.0	-14.7	15.9

중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 배)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IT, 소재, 경기소비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업종 하향조정	-0.6	-0.8	0.5	5.3	-1.3	-1.6	0.7	-43.8	-20.4	-16.7	-6.7	8.5
에너지	0.4	-2.2	-3.2	-3.7	-2.0	-3.9	-5.4	-77.8	-55.6	-66.7	-77.8	8.3
소재	-2.3	-7.0	-14.7	-15.3	-9.1	-18.4	-22.7	-75.0	-75.0	-63.2	-47.4	9.1
산업재	-1.8	-1.8	-3.3	-3.0	-3.0	-6.6	-10.6	-33.3	-25.0	-24.0	12.0	10.4
경기소비재	-2.0	-1.1	-0.2	2.3	-2.3	-4.3	-5.8	-27.8	-50.0	-41.2	-11.8	11.3
필수소비재	-1.1	-0.6	2.1	1.1	-1.8	-2.2	-7.4	-72.7	-36.4	-36.4	-45.5	22.3
금융	-0.3	0.0	2.8	10.7	-0.5	0.6	5.7	-51.4	13.5	36.1	18.2	6.0
IT	-3.1	-0.9	2.9	9.5	-3.1	-2.4	-2.9	0.0	-20.0	-20.0	60.0	23.5
통신서비스	0.2	0.1	0.3	0.8	0.2	0.3	1.5	50.0	50.0	0.0	50.0	11.0
유틸리티	2.7	4.2	9.8	23.2	4.2	8.1	17.2	0.0	50.0	25.0	25.0	11.3

자료: IBES(2013. 08. 15 기준),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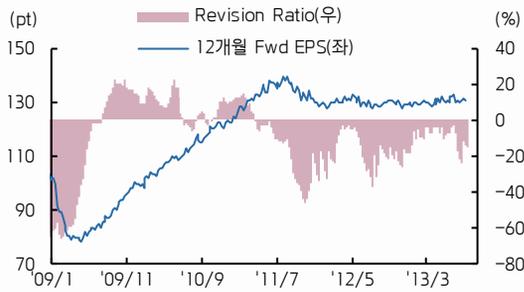
주: Revision Ratio, PER은 12개월 Forward EPS 기준

Revision Ratio = [(12개월 Forward EPS 상향조정 기업 수 - 하향조정 기업 수) / 총 기업 수]

중국 의료 업종은 Data가 없는 관계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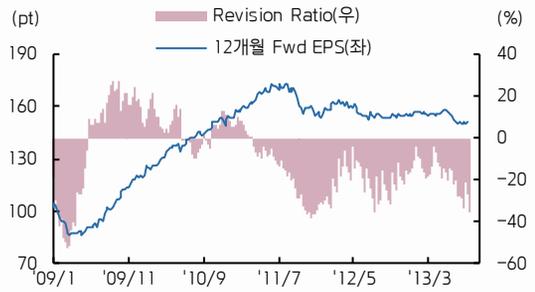
>>> MSCI 주요 지역별 12M Fwd EPS & Revision Ratio 추이

A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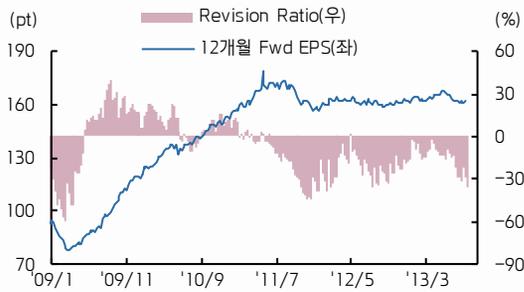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MERG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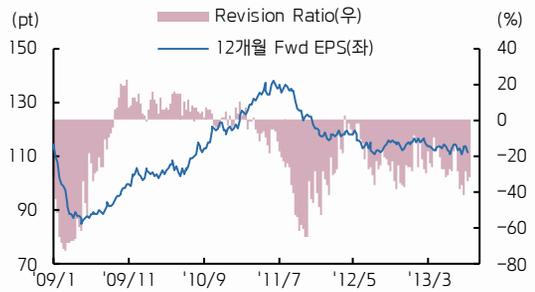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ASIA-PAC. EX 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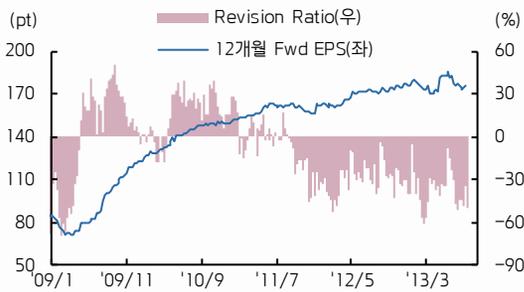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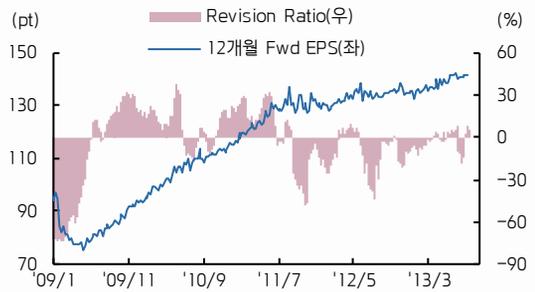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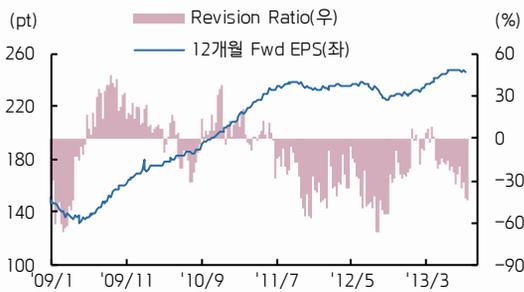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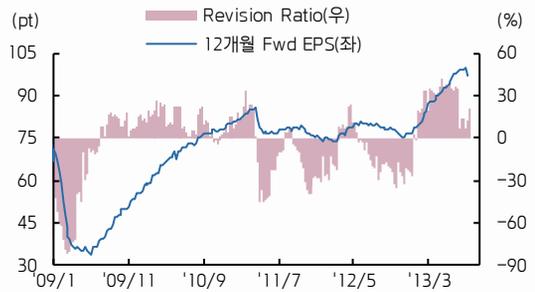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CHINA



자료: IBES,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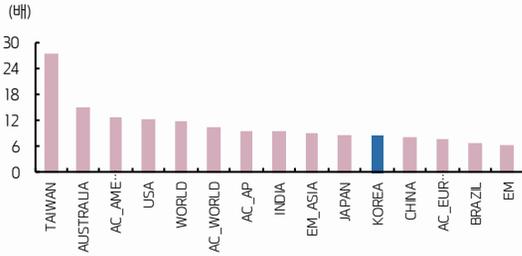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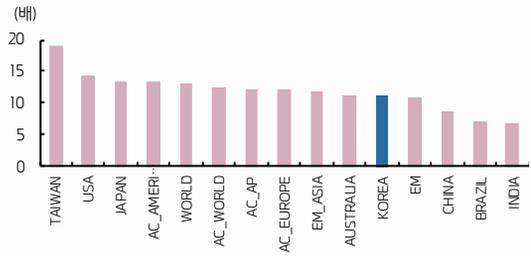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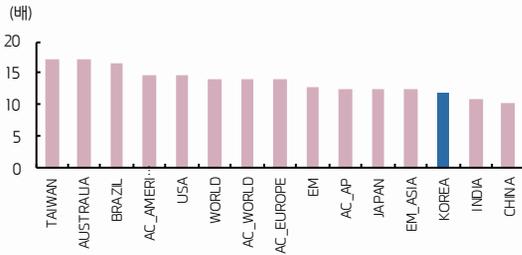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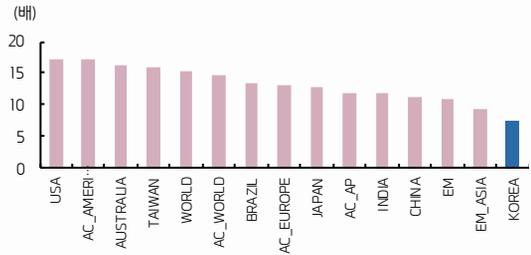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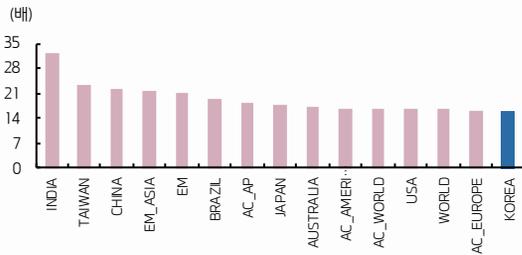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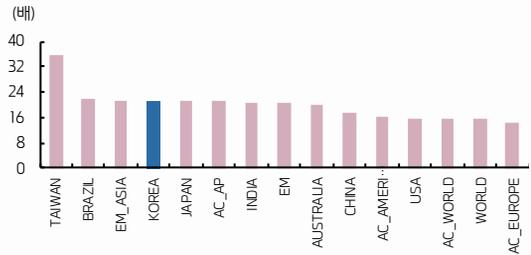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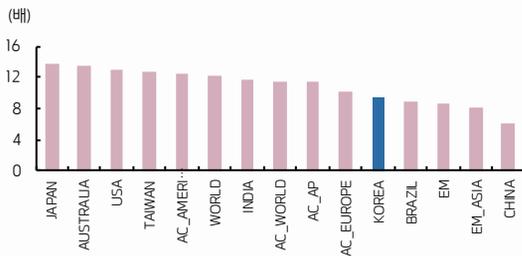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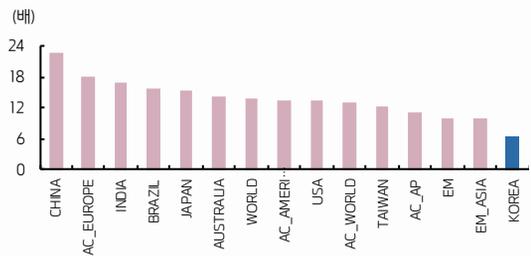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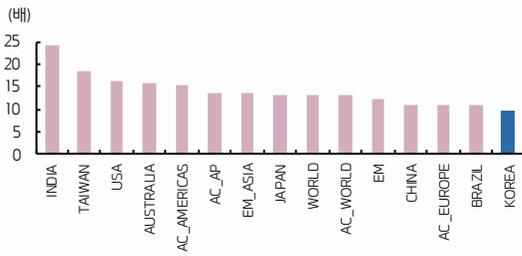
금융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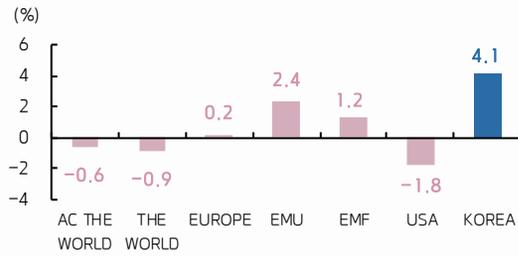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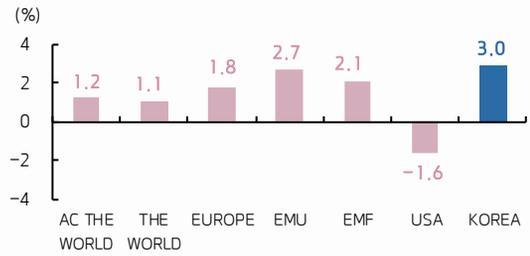
자료: IBES (2013. 08.15 기준), 키움증권
 주 Taiwan 의료/유틸리티 업종 집계되지 않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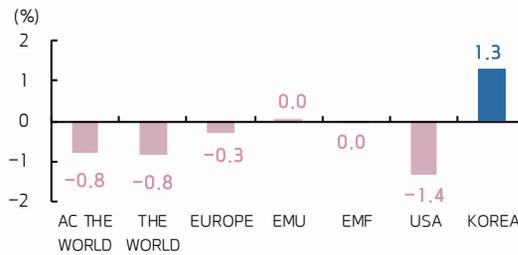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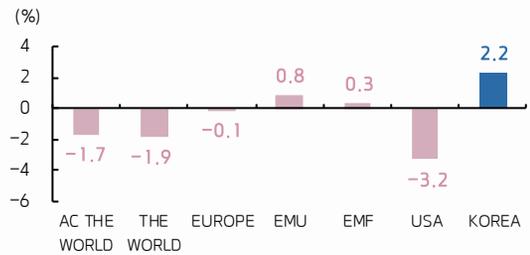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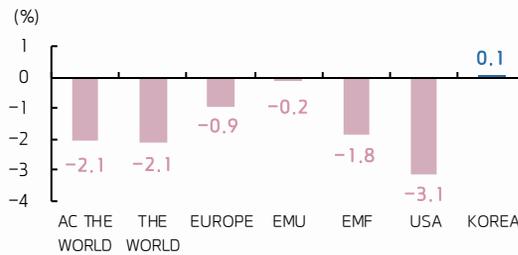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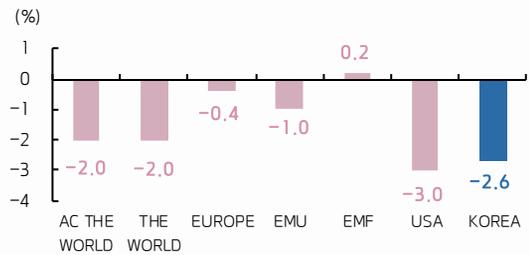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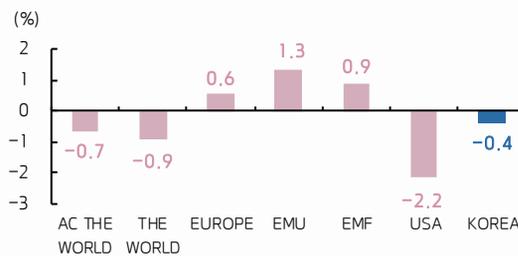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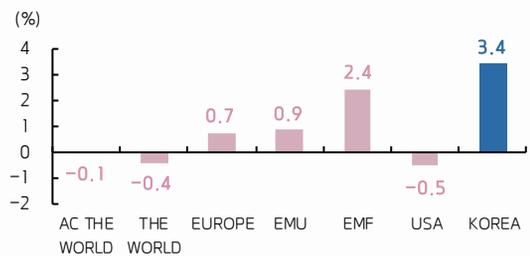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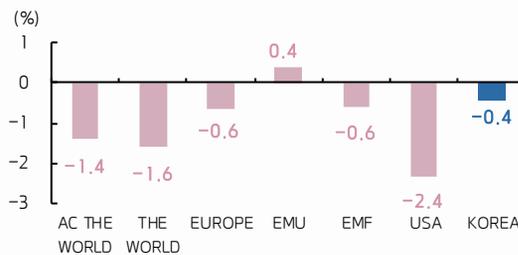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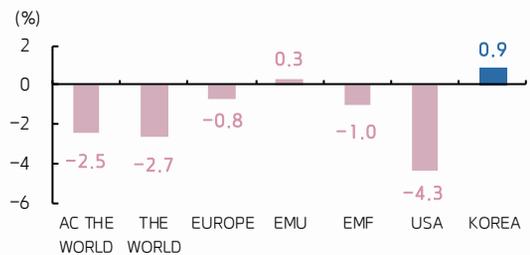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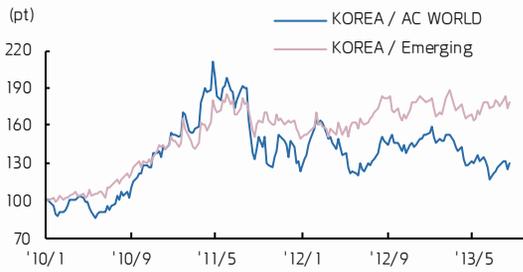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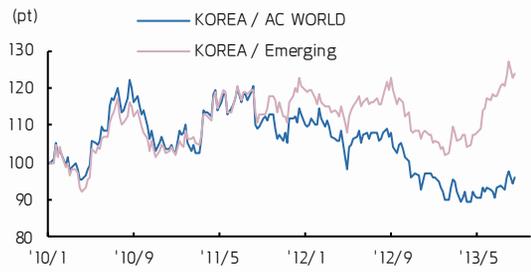


>>> MSCI KOREA 주요 시장대비 상대강도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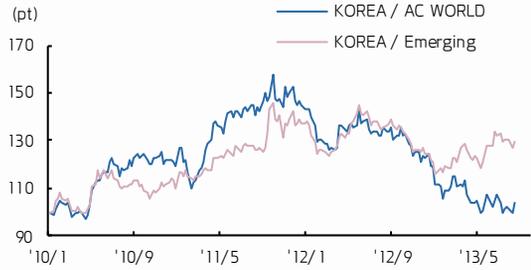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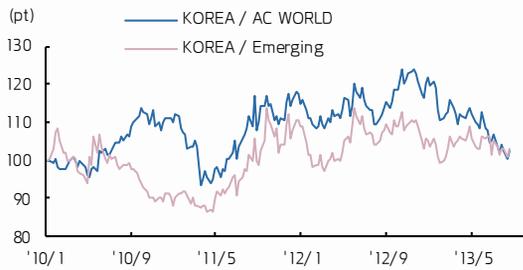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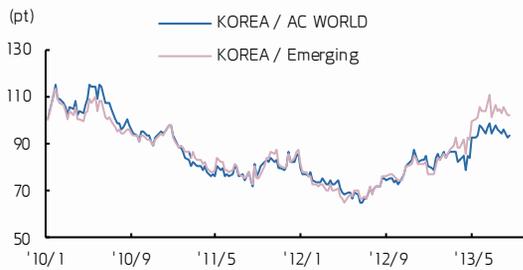
금융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 해외 주요지수 · 종목 동향

주요국 지수	증가	D-1	D-5	D-20	주요 상품가격	증가	D-1	D-5	D-20
Dow	15,081.47	-0.20%	-2.23%	-2.97%	금(COMEX)	1,371.70	+0.74%	+4.48%	+6.09%
NASDAQ	3,602.78	-0.09%	-1.57%	+0.42%	천연가스(NYMEX)	3.37	-1.49%	+4.27%	-11.11%
S&P 500	1,655.83	-0.33%	-2.10%	-2.14%	알루미늄(LME,3M)	1,926.00	+1.82%	+3.19%	+6.00%
Semiconductor	462.46	+0.35%	-1.97%	-4.88%	전기동(LME,3M)	7,374.50	+1.75%	+2.27%	+6.49%
NYSE	9,465.59	-0.25%	-1.63%	-1.59%	아연(LME,3M)	1,987.50	+2.19%	+2.13%	+6.48%
NASDAQ 100	3,073.91	-0.08%	-1.43%	+0.95%	WTI(현물)	107.46	+0.12%	+1.41%	-0.55%
S&P 100	742.38	-0.29%	-1.84%	-2.00%	옥수수	473.75	-1.61%	+1.72%	-12.91%
S&P mid 400	1,205.70	-0.32%	-2.59%	-2.31%	설탕(NYBOT/ICE)	16.94	-1.45%	-0.24%	+3.99%
S&P small 600	580.24	-0.34%	-2.00%	-1.70%					
Russell 2000	1,024.30	-0.32%	-2.30%	-2.49%	한국 DR 및 환율				
영국	6,499.99	+0.26%	-1.27%	-1.97%	KB금융지주(ADR)	32.05	-0.22%	-1.84%	+3.15%
독일	8,391.94	+0.19%	+0.64%	+0.72%	신한지주(ADR)	36.89	+0.46%	+0.49%	+4.86%
프랑스	4,123.89	+0.75%	+1.16%	+5.06%	LG디스플레이(ADR)	12.91	+1.18%	+1.18%	+8.03%
일본	13,650.11	-0.75%	+0.26%	-6.44%	POSCO(ADR)	74.91	-0.05%	+0.70%	+7.47%
대만	7,925.00	+0.48%	+0.27%	-1.70%	SK텔레콤(ADR)	21.17	+1.78%	+0.62%	-2.85%
홍콩항셍	22,517.81	-0.10%	+3.98%	+5.49%	한국전력(ADR)	13.23	-0.23%	+1.61%	+3.52%
홍콩 H	10,220.20	+0.13%	+7.76%	+7.67%	KTI(ADR)	15.81	+1.35%	-1.00%	-0.69%
상하이종합	2,068.45	-0.64%	+0.79%	+3.80%	우리금융지주(ADR)	30.20	-1.31%	-1.63%	-0.69%
상하이A	2,164.85	-0.64%	+0.79%	+3.81%	삼성전자(GDR)	581.00	+1.13%	+4.50%	+1.93%
선전A	1,023.24	-2.06%	-1.62%	+5.23%	삼성전자 우 (GDR)	392.80	+2.29%	+7.15%	+9.72%
태국	1,445.76	-0.50%	-0.10%	-0.84%	현대차 우 (GDR)	47.47	+5.49%	+4.79%	+13.70%
싱가폴	3,197.53	-0.73%	-1.00%	-0.34%	LG전자(GDR)	13.55	+1.12%	+4.63%	+21.96%
인도네시아	4,568.65	-2.49%	-1.55%	-1.39%	롯데쇼핑(GDR)	15.78	+1.15%	+1.15%	+2.80%
러시아	1,323.42	-0.31%	-0.17%	-4.26%	STX팬오션(SGD)	2.82	+3.68%	+10.59%	+57.54%
인도	18,598.18	-3.97%	-0.36%	-6.77%	원/달러	1,113.60	-0.46%	+0.12%	-0.73%
멕시코	42,049.70	-0.25%	-1.40%	+5.41%	엔/달러	97.53	-0.33%	+1.37%	-3.10%
브라질	51,538.78	+1.24%	+3.34%	+8.73%	달러/유로	1.3329	+0.52%	-0.10%	+1.42%
한국	1,920.11	-0.20%	+1.92%	+2.38%	위안화/달러	6.1143	+0.02%	-0.13%	-0.39%

다우지수 구성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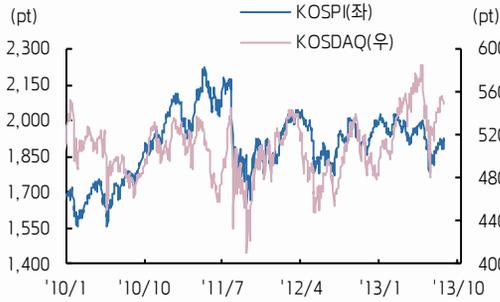
3M	115.90	+0.04%	-2.04%	-0.25%
Alcoa	8.12	-0.49%	-1.22%	+0.62%
Altria Group	34.57	-0.81%	-3.05%	-7.70%
American Express	75.17	+0.39%	-0.44%	+1.50%
AIG	47.04	+0.13%	-1.94%	+0.47%
AT&T	34.18	-0.49%	-1.78%	-4.55%
Boeing	103.47	+0.72%	-1.77%	-3.26%
Caterpillar	85.16	-0.82%	+0.77%	-0.57%
Citigroup	50.35	-1.00%	-1.89%	-3.82%
Coca Cola	39.05	-0.10%	-2.76%	-4.96%
Du Pont	58.28	-0.78%	-2.44%	+2.00%
Exxon Mobil	87.91	-0.28%	-3.10%	-7.63%
General Electric	23.95	-0.21%	-1.24%	-3.11%
General Motors	34.38	-0.49%	-4.55%	-6.09%
Hewlett Packard	26.42	+1.81%	-1.31%	+5.09%
Home Depot	75.38	+0.32%	-4.55%	+5.65%
Honeywell	47.10	+0.13%	-1.94%	+0.47%
IBM	185.34	-0.24%	-1.32%	-4.24%
Intel	21.90	-0.59%	-2.71%	-4.95%
J&J	89.37	-0.20%	-3.24%	-3.10%
JPMorgan	53.29	0.00%	-2.26%	-5.11%
McDonald's	95.03	-0.38%	-2.65%	-5.23%
Merck	47.70	-0.56%	-1.43%	-0.19%
Microsoft	31.80	+0.03%	-2.75%	+1.29%
Pfizer	28.37	-1.49%	-2.88%	-2.48%
P&G	79.90	-0.72%	-2.13%	-1.81%
United Tech	103.08	+0.09%	-2.40%	+0.59%
Verizon	47.71	-1.71%	-3.26%	-4.48%
Wal Mart	74.11	-0.40%	-3.63%	-5.08%
Walt Disney	62.17	-0.34%	-3.95%	-4.59%

필라델피아반도체 구성종목 및 주요 기술주

AMD	3.66	-0.81%	+0.27%	-9.18%
Altera	35.00	+0.89%	-2.80%	-1.44%
Applied Materials	15.62	+1.96%	-0.32%	-5.68%
Broadcom	25.91	-0.46%	-0.58%	-23.09%
Cree	57.12	+2.13%	-21.82%	-17.88%
Intel	21.90	-0.59%	-2.71%	-4.95%
KLA-Tencor	56.61	-0.79%	-1.91%	-6.66%
LAM research	47.84	+1.36%	+0.29%	-5.44%
Linear Tech	39.14	+0.05%	-1.93%	-1.86%
Marvell Tech	13.00	-0.23%	+2.36%	+7.97%
MEMC	6.94	+0.73%	-5.96%	-28.08%
Micron Tech	14.01	-0.88%	+0.11%	+2.00%
National Semi	49.84	+3.06%	+1.12%	+8.63%
Novellus System	40.39	-0.47%	-6.16%	-10.44%
Sandisk	55.81	-0.23%	-3.79%	-11.00%
Stmicroelectron	8.45	+0.24%	-0.24%	-14.21%
Taiwan Semi	15.97	-0.19%	-1.48%	-3.15%
Teradyne	15.98	+0.13%	-1.24%	-10.48%
Texas Instrument	29.11	-0.78%	-1.32%	-3.64%
Xilinx	44.56	+1.20%	-1.63%	-2.83%
Apple	502.33	+0.89%	+10.54%	+18.21%
Ebay	52.92	-0.49%	-0.77%	+1.41%
Cisco	24.27	-0.88%	-6.84%	-6.00%
Dell	13.82	+0.84%	+0.58%	+5.18%
Research In Motion	10.51	-4.06%	+7.68%	+17.17%
Google	856.91	-0.32%	-3.76%	-4.43%
Nokia	4.14	+0.73%	-0.72%	+2.99%
Oracle	32.41	-0.98%	-1.55%	+1.73%
Qualcomm	66.90	-0.07%	+0.95%	+8.85%
Yahoo	27.32	+0.66%	-1.30%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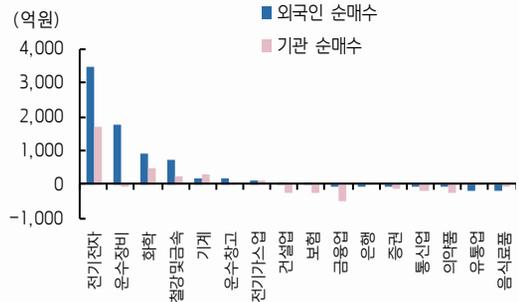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KOSPI vs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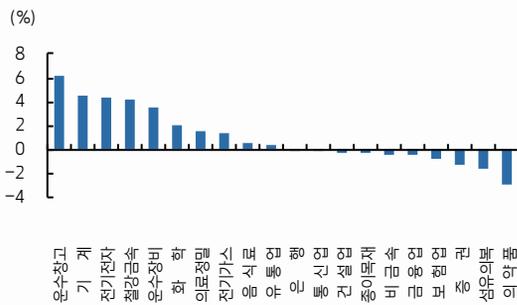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업종별 주간 기관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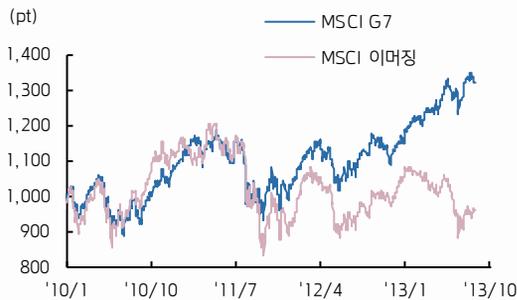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매수차익잔고 vs 매도차익잔고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MSCI G7 vs MSCI 이머징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다우존스 vs 나스닥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닛케이 225 vs 대만 가권지수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상하이 A vs Mumbai SENSEX 30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원/달러 vs 원/1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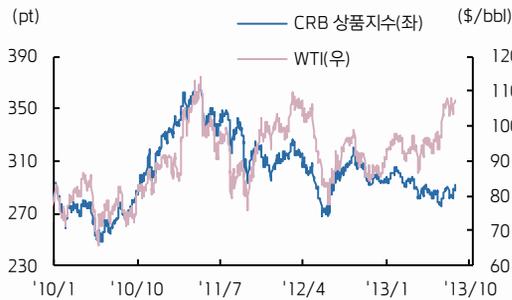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미 국채 수익률 2년 vs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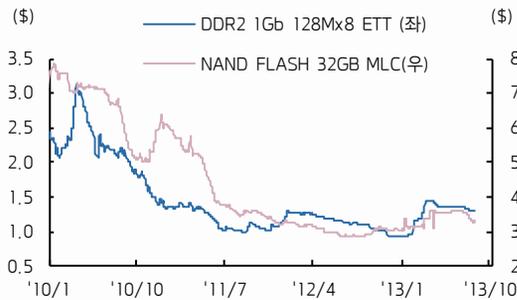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CRB 상품지수 vs WTI 현물가격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DRAM2 1GB vs NAND FLASH 32GB MLC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엔/달러 vs 달러/유로



자료: CEIC, 키움증권

국고채 수익률 3년 및 회사채 AA- 수익률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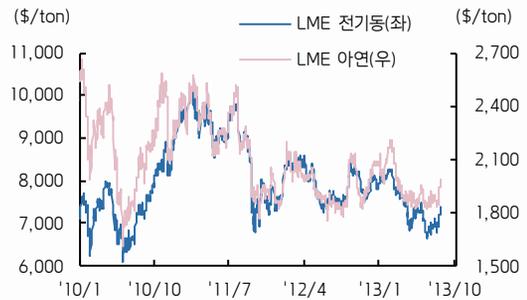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국제 금가격 vs 달러 인덱스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LME 전기동 3M vs LME 아연 3M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